

한림원의
목소리
제77호

마약류 중독 확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제언

국가적 차원의 예방·치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약류 중독 확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제언

국가적 차원의 예방·치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약류 범죄지수는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인원을 의미하는 지수로서 20을 넘는 사회는 이미 마약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암수범죄(적발되지 않은 범죄)의 개념 하에 적발된 수의 약 10~20배에 달하는 인원이 상습투여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도에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며 마약류 범죄지수가 20을 넘어섰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이르러서는 1만5천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최소 20~30만 명의 상습투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년 1만 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매년 엄청난 수의 새로운 중독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지라도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중독은 뇌 질환의 일종이나 사회적으로 중독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간 우리는 마약류 사범을 단순 범죄자로서만 바라보았으며 정부대책도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독자 치료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 있음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는 만큼 치료보호가 강조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중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마약에 빠져 지내다 이제는 재활에 성공해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회복자를 비롯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6월 4일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 진행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뇌과학적 연구에 투자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보강 및 전담 연구 기관(K-NIDA) 설립 등 네 가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불법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보다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2019. 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마약’이라고 하면 흔히 조직 폭력배의 모습과 함께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마약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한 고 카페인 음료, 저소득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본드 및 부탄가스, 젊은층에서 의존하는 다이어트 약물,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유학생을 통해 확산되는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이 활개치고 있으며 필로폰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안전한 약물로 여겨졌던 졸피뎀으로 인한 부작용과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현상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사회 전 영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중독성 물질들의 확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히 ‘마약은 나쁜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막연한 예방활동만으로는 유행처럼 번져가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중독성 물질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전 연령대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교육을 진행해야하며 특히 이삼십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마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중독되었다고 하는가



임상적으로 마약이란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상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지칭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마약류의 정의는 고정된 분류의 개념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존 형태에 화학처리를 하는 식으로 1년에도 수백종씩 새로운 약물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에 대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사용을 중지하면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해져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02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률은 40%에 이르며 지난 십수년간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과 구속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느 질환보다도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정부에서는 적발된 중독자들이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에서는 근거기반의 표준화된 치료 프로그램이 전문인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치료보호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중독 문제를 가진 일반인이 거점병원을 통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은닉된 중독자를 발굴하고 선별하여 치료 및 재활서비스로 연결하고 관리해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 전문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뇌과학적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약중독은 뇌질환으로써 대뇌보상회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해 마약에 대하여 의존성 및 갈망을 형성하도록 만들뿐 아니라 인지적 판단장애를 가져와 현실적 폐해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뇌에 저장된 마약에 대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특히 마약과 연결된 주변 환경자극에 대한 조건화반응 형성으로 재발이 쉽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가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중독 치료기술과 중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연구 투자는 필수적이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속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선도적으로 치료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지닌 유전적 특성이 있는가



각 마약 종류에 따른 유전 영향력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유전율(heritability)은 높은 편이었다. 환각제가 가장 낮은 편으로 약 39%의 유전율을 보이고, 필로폰 등의 암페타민류가 포함된 중추신경자극제는 약 40%, 헤로인 등의 아편류는 약 65%, 그리고 코카인이 가장 높은 72%이 보고되었다.

마약 중독에 취약한 대표적인 유전자(FAM53B 유전자, CNH3 유전자 등)까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전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중독의 위험을 예측하고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04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보강과 전담 연구 기관(K-NIDA)의 설립이 시급하다.

마약류 중독은 한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전, 건강 및 발전을 비롯해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시급하다. 기존의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보다 실질적인 대응체제로 재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마약 중독의 원인과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 규명, 그리고 치료적 적용을 위해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라는 국립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커지고 있는 마약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분야만을 전담하는 전문 연구 기관(Korean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K-NIDA)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마약 중독의 원인·결과·영향에 대한 연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략 개발연구 ▲정기적인 마약류 실태조사 실시 ▲국가 마약류퇴치 5개년 전략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은 범죄인가 병인가



마약류 중독은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는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는 물질 관련 중독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로 분류하는 질병이다. 질병의 프레임 안에서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와 그 사회가 처한 문화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는 일반적인 게임, 알코올, 담배, 도박 등이 쾌락 중추에 미치는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영구적이고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보다 강력한 중독성과 폐해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범죄로까지 규정함으로써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해외 사례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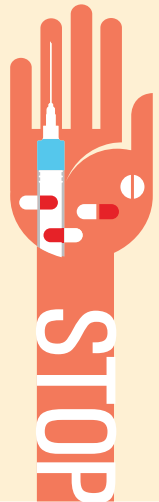
마약류 중독은 엄청난 중독성과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이후에는 사후약방문 형식의 땀집식 교육정책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효율이 높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호주 및 미국 : 약물 법정(Drug Court)

재판부와 지역사회 치유재활팀이 협력해 중독자의 회복상태에 따라 전과 말소까지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제도로서 기존의 외래 치료 명령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사법부가 치료팀의 일원이 됨으로써 중독자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회복을 견인해갈 수 있다.

☞ 유럽 및 미국 :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마약류 중독자들은 출소 혹은 퇴원 후 살아가야 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다시 재발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수준(levels of care)을 나누고 각 수준에 맞는 치료공동체(중독자들의 거주 생활시설), 데이케어 센터, 중간 집(half-way house) 등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유와 재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각 분야 연구 리더들이 한림원의 회원이며, 각자의 역량과 지혜, 리더십을 결집하여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 국가정책기관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제시하고, 첨예한 논쟁에 직면한 쟁점들에 대해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과 정책 대응,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홈페이지 www.kast.or.kr
블로그 kast.tistory.com
포스트 post.naver.com/kast1994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tnews